

新羅 憲德王代 金憲昌의 亂과 晉州地域

박용국*

|| 차례 ||

1. 머리말
2. 金憲昌 亂의 政治의 性格
3. 金憲昌의 亂과 晉州地域 在地勢力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金憲昌 亂의 정치적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신라 下代의 변화를 地方 勢力, 특히 晉州地域 在地勢力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명한 專論이 없다는 점은 시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史料의 해석에서도 기인한다. 新羅 下代의 권력 다툼 중에서 金憲昌의 亂은 중앙세력과 재지세력이 동시에 관련된 최초의 반란으로써 명백히 왕조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 중앙세력에 대해서는 父 金周元을 예를 들면서 왕통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舊百濟地域을 비롯한 地方勢力에 대해서는 왕조교체를 대의명분으로 내걸었다.

중앙세력 중에서 김헌창이 호응을 기대한 金周元 家系의 지지가 없었던 것은 이미 王室親族集團員에 의한 권력 장악·집중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실제 김헌창 반란의 주도세력은 村主勢力을 비롯한 지방세력이었다. 그 대표적 지방세력은 크게 熊川州를 비롯한 구백제지역과 사실상 자신의 세력기반이었던 靑州, 즉 晉州地域이었다. 반란이 일어날 당시 김헌창이 중앙의 진압군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했던 곳이 청주 관할 하의 성산이었다는 점과 靑州都督 向榮의 반란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보더라도 청주지역은 김헌창의 핵심 기반이었다고 생각된다.

김헌창의 난은 옛백제 지역 재지세력에게 백제 부흥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자극한

* 진주산업대 교양학부 강사

사건이었다. 또한 여타 지역 재지세력의 反中央인 기운을 촉진시켰다. 반면에 웅천주와 더불어 김헌창의 기반이었던 청주지역의 재지세력은 커다란 타격을 입어 도태되거나 재편을 겪었다. 하지만 薺州地域이 일시적이거나 중앙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으로 존재했었던 사실은 9세기 말 촌주세력의 급격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정치적 배경이었다고 추정된다.

주제어 金憲昌, 叛亂, 薺州地域, 在地勢力, 自立化

1. 머리말

憲德王 14년(822) 3월 熊川州都督 金憲昌은 그의 父 金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웅천주를 비롯한 5주 3소경을 기반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국호를 長安, 연호를 慶雲이라 하여 왕조교체를 명백히 하였다. 이 점은 신라 사회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써 골품체제인 신라 사회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바꾸어 말해서 김헌창의 난은 중앙 중심의 사회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는 興德王代 골품제 재강화의 노력이나 淸海鎮의 張保皋가 중앙의 왕위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김헌창의 난에 대해서는 신라 하대의 정치사 연구에서 거의 빠짐없이 언급될 정도였다.¹⁾ 이에 따르면 김헌창 난은 元聖王系(金敬信)과

1) 김헌창의 난에 대한 專論은 최근 黃滄榮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연구도 그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의외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편적 언급에 그쳐 그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한 김헌창의 난에 대한 주요 有關 논고는 다음과 같다.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潮閣, 1984.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武烈王系(金周元)의 왕위 다툼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직접적 계기를 憲德王代 김현창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왕위계승 실패를 무열왕계의 몰락²⁾으로 파악한 것은 哀莊王代 이후 김주원 가계의 정치적 활약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김주원 가계가 왕위계승에서 멀어졌을지라도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봐서 김현창의 반란은 헌덕왕·金秀宗·金忠恭 계열의 一群의 귀족과 정치에서 소외된 一群의 귀족 간의 대립에서 빚어진 정치적 갈등의 소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³⁾ 여기서 문제는 중앙의 진골귀족이 김현창의 난에 가담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현창 난의 정치적 원인으로 신라 중앙 정치세력 간의 갈등적 측면보다도 왕과 태자를 정점으로 하여 극히 좁은 범위의 근친왕족들이 요직을 독차지함으로써 헌덕왕 후반대에 김현창이 중앙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지세력의 성장과 지방사회의 동요에 자극받은 김현창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김현창 난의 재지적 기반을 대체로 舊百濟地域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지역의 반신라적인 정서를 고려하였을 것으로 이해하였다.⁴⁾ 이상과 같이 김현

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政治의 立場」, 『大丘史學』 26, 1984 : 『新羅政治變遷史研究』, 螢雪出版社, 2003.

金貞淑, 「金周元世系의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1984.

金昌謙,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金周元系의 動向」, 『臯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黃善榮, 「新羅 下代 金憲昌 亂의 性格」, 『釜山史學』 35, 1998 :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 李明植, 「앞의 논문」, 239쪽.

黃善榮, 「앞의 논문」, 42쪽.

3)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17쪽 ; 金東洙, 「앞의 논문」, 39쪽 ; 鄭清柱, 「弓裔와 豪族勢力」, 『全北史學』 10, 1986 :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90쪽.

4) 일찍이 井上秀雄은 김현창은 자신이 도독으로 있었던 靑州地域을 비롯한 지방세력에

창의 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그 가담세력과 재지적 기반을 구백제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도 남는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 하에 헌덕왕대 초반의 정치를 검토하여 김헌창 난의 정치적 성격을 구명하겠다. 이를 통해서 羅末麗初 호족세력의 사회·정치적 성장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한다.⁵⁾ 특히 그가 靑州都督으로 장기간 체류하고 웅천주도독으로 옮겨 간지 불과 1년도 안되어서 난을 일으켰던 점에 보면 그 사건이 진주지역 재지세력과의 관련성을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헌창 난을 통해서 신라 하대 지방세력의

연계하여 난을 일으켰다(『新羅王權と地方勢力』 『朝鮮史研究會會報』 7, 1964: 『新羅史基礎 研究』, 東出版, 1974, 386~389쪽)고 하여 김헌창의 난의 재지적 기반에 주목하였다. 이후 李明植·崔根泳도 그것에 주목하였으나 단편적 언급에 그쳤으며,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이는 황선영이었다. 그는 靑州都督 向榮이 이웃 推火郡으로 도망하였던 것에 알 수 있듯이 청주는 곧 중앙 정부의 편으로 돌아섰으므로 그 재지적 기반은 사실상 구백제지역과 그 이웃 사벌주가 중심이었다고 하였다. 과연 도독 향영의 脫走와 청주지역의 반란에 대한 항배를 직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지의 문이다. 오히려 향영이 곧장 왕경으로 달아나 반란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청주지역이 반란의 주도세력으로서 그 자신이 사실상 축출된 것에 다름없었지만 워낙 그 규모가 크고 지지가 광범하여 결단을 유보하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李明植, 「앞의 논문」, 240~243쪽.

崔根泳, 「8~10世紀 地方勢力形成의 諸要因」,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增補版), 신서원, 1993, 77쪽.

黃善榮, 「앞의 논문」, 47~54쪽.

- 5) 지금까지 羅末麗初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각 지방 호족의 군사·정치적 활동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변동의 실체론 농민항쟁이라는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변동의 여러 양상 가운데 민의 움직임을 중심에 놓고 이 시기 변화의 구체적 모습에 접근하고자 한 노력들이 주목된다(전덕재, 「신라하대의 농민항쟁」, 『한국사』 4, 한길사, 1994; 蔡雄錫, 「新羅下代 사회변동과 豪富層의 성장」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 서울대출판부, 2000; 박종기, 「지배와 자원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 역사, 2002.;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研究』, 혜안, 2003).

변화, 특히 진주지역 재지세력과 관련성을 구명하려고 한다.

2. 金憲昌 亂의 政治的 性格

나말여초는 골품체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로 모색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지세력의 사회·정치적 성장의 계기를 중앙과 지방의 관점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당시 실상에 보다 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앙의 정치적 변화에서 9세기 초 이후 지방 사회의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겠다. 新羅 惠恭王代(765-780)는 정치권력구조 상에서 볼 때 약간의 異見⁶⁾이 있을지라도 중대에서 하대로의 시대적 변동을 초래했을 정도로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를 둘러싼 권력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海公왕 4년(768) 大恭의 난·6년(770) 大阿湊 金融의 난·11년(775) 6월 伊湊 金隱居의 난·同 8월 伊湊 廉相의 난이 일어났

6) 李泳鎬는 이기백의 반전제주의 세력의 대표인 金良相이 상대등에 취임한 海公왕 10년(774)의 근거인 金陽상과 金崑의 반왕파란 설을 비판하면서 海公왕대의 정치를 도식화하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李基白(1993, 1995)은 전제왕권체제가 종식된 시기 문제를 비롯한 李泳鎬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펼쳤는데 신라 중대의 붕괴과정을 비롯한 지배체제를 둘러싼 논의에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면 되겠다.

李泳鎬, 「新羅 中代の 政治와 權力構造」,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5.

李仁哲, 「新羅 中代の 政治形態」 『韓國學報』 77, 1994 : 『新羅 政治經濟史 研究』, 一志社, 2003.

李基白, 「新羅 專制政治의 成立」 『韓國史 轉換期の 문제들』, 一潮閣, 1993 : 『韓國 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李基白, 「統一新羅時代의 專制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一潮閣, 1993 : 『韓國 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裴琮道, 「전제왕권과 진골귀족」 『한국역사입문』 ②(중세편), 풀빛, 1995.

李基白, 「新羅 專制政治의 崩壞過程」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34, 1995 : 『韓國 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李泳鎬, 「統一新羅 政治史 研究의 現況과 方向」 『白山學報(申澄植博士 回甲紀念論叢-新羅史의 再照明-)』 52, 1999.

으며, 同王 16년(780) 伊浚 志貞의 난이 일어나자 上大等 金良相과 伊浚 金敬信이 연합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혜공왕까지 살해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이렇듯 8세기 말부터 왕권과 진골귀족간의 충돌과 나아가 진골귀족 상호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골귀족들이 私兵을 길러 서로 다투게 되면서 자연히 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이어졌으며,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혜공왕대에 시작된 왕위를 둘러싼 권력다툼은 왕권과 왕위 계승권의 장기적 불안으로 이어졌으며, 신라 사회는 실력에 의한 권력 교체가 반복되는 극도의 정치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金憲昌 亂의 전모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 - (十四年) 三月에 熊川州 都督 憲昌은 그 父 周元이 앞서 王位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배반하여 國號를 長安이라고 하고 年號를 지어 慶雲元年이라고 하고 武珍·完山·薺·沙伐州의 四州 都督과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의 使臣과 諸郡縣의 守丞을 협박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으니 靑州都督 向榮이 몸을 빼 推火郡으로 달아나고 漢山州·牛頭州·歆良州·沮江鎮·北原京 등의 여러 성은 먼저 헌창의 逆謀를 알고 擧兵 自守하였다. 十八日에 완산주의 長史 崔雄과 州助인 阿浚 正連의 아들 舍忠 등이 王京으로 도망하여 이를 알렸다. 왕은 곧 최웅에게 級浚의 位와 速含郡 太守의 職을, 령충에게 級浚의 位를 주었다. 드디어 員將 8人을 差定하여 왕도의 팔방을 지키게 한 후 군사를 출동하였다. 一吉浚 張雄은 먼저 나아가고 逆浚 衛恭·波珍浚 悌陵은 그 뒤를 잇고 伊浚 均貞·逆浚 雄元·大阿浚 祐徵 등은 三軍을 통솔하고 나갔다. 角干 忠恭과 逆浚 允膺은 蚊

7) 즉 겨우 여덟살 난 혜공왕(惠恭王, 765-780)이 왕위를 계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대恭의 난(768)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불안한 왕권을 탈취하기 반란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96角干이 서로 싸웠다고 할 정도로 크게 왕권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라는 두 세력간의 전면적 대결은 전에 겪어 보지 못한 大亂이었다. 그리하여 김양상이 최종적 승리자로서 왕위(宣德王, 780-785)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三國史記』 9, 新羅本紀 惠恭王條 : 『三國遺事』 2, 紀異 2, 惠恭王條 참조.

火關門을 지키고 (中略) 이 때 헌창은 그 장수를 보내어 要路에 據하여 관군을 기다렸다. 張雄이 적병을 道冬峴에서 만나 이를 격파하였고 衛恭·梯陵은 장웅군과 합하여 三年山城을 쳐서 이기고 俗離山으로 나아가 적병을 격멸하였다. 均貞 등은 星山에서 적과 싸워 이를 멸하고 諸軍이 함께 熊津에 도착하여 적과 大戰하여 참획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헌창이 겨우 몸을 빼 入城 固守하였으나 諸軍의 포위공격이 十日에 이르러 성이 장차 함락하려 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從者가 머리를 베어 몸동이가 각각 따로 묻었는데 성을 함락하자 古冢에서 그 몸을 찾아 다시 베고 그의 친족과 도당 239인을 죽이고 民을 해방한 후 論功하여 爵賞을 差等하였다. 阿湊 祿眞에게 大阿湊 位를 주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敵良州의 屈自郡은 賊에게 가까웠으나 亂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7년간 납세를 면제하였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4年條).

위의 사료에 따르면 金憲昌은 왕위계승에 대한 불만으로 反亂을 일으켰으며, 명백히 새로운 왕조 건설을 앞세웠다. 이러한 점에서 김헌창의 난은 新羅 下代 중양의 권력 다툼 중에서 매우 독특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김헌창은 武珍·完山·菁·沙伐州의 四州와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의 三小京을 일시에 장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주 도독 向榮과 완산주의 長史 崔雄과 州助인 阿湊 正連의 아들 命忠 등 극히 일부 중앙세력이 왕도나 이웃군으로 도망하였다. 동서북 변경지역과 왕도의 동남쪽에 이웃한 삼랑주를 제외하고 세력판도에서 볼 때 주요한 모든 지역이 熊川州都督 김헌창 모반에 호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관군이 진압군의 출정과 동시에 왕경에 해당하는 蚊火關門⁸⁾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볼 때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四州 都督과 小京 使臣 및 諸郡縣의 守令을 협박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사실의 측면

8) 蚊火關門은 지금의 경주시 외동읍(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上, 乙酉文化社, 1983, 203쪽)으로서 왕도 서라벌 방어에서 서북쪽 건천읍과 더불어 주요한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동남쪽 진출로에 해당한다.

이러기보다 모반의 부당성을 대외에 알리어 王京의 中央軍이 진압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던 데에 비롯한 것이었다. 김헌창이 웅천주를 근거로 하여 일시에 四州 三小京의 호응을 받아 신라를 양분할 만큼 큰 세력을 일시에 이루었다는 것은 그 만큼 반란의 명분에 호응하는 지방관과 재지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헌창은 哀莊王 8년(807) 伊滄으로서 권력구조에서 중요한 侍中職에 임명되었다가⁹⁾ 憲德王 5년(813) 정월에 武珍州 都督이 되었다.¹⁰⁾ 그런데 김헌창이 무진주 도독으로 임명될 당시에 시중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김헌창이 시중으로 임명된 애장왕 8년과 무진주 도독으로 임명된 헌덕왕 5년 사이에 권력을 잃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장왕 10년(809) 金彦昇이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 동왕 2년(810) 正月에 波珍滄 亮宗을 시중으로 삼았던 사실과 동왕 3년(811) 정월에 시중 亮宗이 병으로 사직하자 伊滄 元興,¹¹⁾ 4년(812) 봄에 均貞으로서 시중을 삼았던 사실¹²⁾에서 보면 김헌창은 애장왕이 살해되면서 시중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애장왕 8년(807) 시중에 임명되었던 김헌창은 김언승의 왕위찬탈 과정에서 시중직을 상실하고 헌덕왕이 왕위를 차지한 이후 무진주 도독으로 임명되는 헌덕왕 5년(813) 사이에 세 번이나 있었던 시중 任免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그리고 헌덕왕 4년(812) 봄에 均정이 시중으로 임명된 1년 후 김헌창이 지방관인 무진주 도독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고려하면 그가 헌덕왕의 왕위 찬탈에 적극적인 가담자가 아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다. 그

9) “伊滄 金憲昌으로 侍中을 삼았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哀莊王 8년 春正月條).

10) “伊滄 憲昌으로 武珍州 都督을 삼았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5년 春正月條).

11)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哀莊王 10年 秋七月條 및 憲德王 卽位年·二年·三年條.

12)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4년 春條.

렇지만 헌덕왕이 中代 武烈王系인 金周元¹³⁾의 嫡子로서 王統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김헌창을 중앙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집권 초기에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¹⁴⁾

헌덕왕은 6년(814) 8월 무진주 도독이었던 김헌창을 왕도로 불러들여 시중으로 삼아 자신의 왕위 찬탈과정에 초래된 잠재적인 불만세력을 무마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이는 잦은 시중 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헌덕왕 전반기의 불안한 권력구조 하에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정치적 견제의 일환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권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김헌창이 지방관인 도독으로 특정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물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세력화할 가능성을 예방함과 동시에 중앙으로 불러들여 견제 가능한 곳에 묶어두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8년 정월 시중이 璋如로 교체되고 시중이었던 김헌창이 靑州 都

13) 金周元 家系에 대해서는 대체로 金仁問의 直系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金貞淑은 萬姓大同譜,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江陵金氏族譜 17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래의 仁問系說과 달리 무열왕의 三子인 文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주원 가계의 세력변천에 대해서는 김정숙의 논고를 참고하면 되겠다. 金貞淑,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1984, 150~158쪽 참고.

14) 비록 김헌창의 父 김주원이 宣德王(780-785) 死後 金敬信과 왕위 다툼에서 밀려났을지라도 群臣會議에서 왕위에 추대되었을 정도로 광범한 진골귀족의 지지를 얻었던 인물이었기에 정치세력 관계상 김주원의 자인 김헌창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宣德王 사후 당시 왕위 계승에서 서열상 보다 정당한 계승자로 인정된 자가 김주원이었기에 상대등 김경신을 二宰로, 侍中인 김주원을 上宰로 기술(『三國遺事』 2, 紀異 2, 元聖大王條)하였으며, 김경신이 왕위를 차지한 것은 상대등이 가지는 정치적 힘에 의한 비상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李基白, 「앞의 논문」, 110~120쪽). 대체로 김주원과 김경신의 세력관계에서 볼 때 김주원이 앞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정치권력구조상 김주원가계의 역할은 상당했었고 그 영향력은 김헌창의 난 이후도 세력을 유지한 김주원의 또 다른 자식인 金宗基·金身과 그 후손에 의해서 신라 하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金貞淑, 「앞의 논문」, 1984, 163쪽)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일 것이다.

督으로 임명되었다.¹⁵⁾ 시중직이 김헌창에서 璋如로 교체되고 김헌창이 지방관인 청주 도독에 임명되었던 것에서 보면 장여는 김헌창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왕권 반대세력인 김헌창을 시중에서 물러나게 함과 동시에 지방관인 청주 도독으로 임명하려 할 때 충분히 그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김헌창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물인 장여를 시중으로 삼아서 무마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¹⁶⁾ 시중직의 교체는 동시에 왕위나 왕위계승 과정에서 왕권 세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김헌창을 중앙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¹⁷⁾ 그만큼 헌덕왕의 왕권이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1년 만인 9년 정월에 장여가 시중직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친왕파의 일원으로 생각되는 이찬 金忠恭으로서 시중을 삼게 됨으로써 헌덕왕의 왕권은 크게

15)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8年 春正月條.

16) 김주원은 宗基·憲昌·身을 두었으며, 璋如는 종기의 두 아들(貞茹와 璋如) 중의 한 명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김헌창의 난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크게 보면 원성왕대 이후 신라 하대의 왕실친족집단원에 의한 권력 집중과 강화 과정에서 견제를 받았거나 소외되었던 자로서 헌덕왕 전반기에 숙부 김헌창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김정숙, 1984 「앞의 논문」, 158~164 쪽 참고). 또한 장여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헌덕왕 14년 김헌창의 반란 진압군에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시중을 역임한 그의 정치적 위상에서 볼 때 신라 양분의 위기에서 진압군의 편성에서 빠질 가능성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을지라도 장여가 진압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것은 김주원 가계의 일원으로서 갖는 혈연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록 가계를 같이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차이가 있음은 이후 여러 권력 다툼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고 정치적 뜻을 같이 했다더라도 적어도 왕조교체에는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왕권 지지세력은 비록 장여가 같은 가계의 일원일지라도 반군과 행동을 달리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포용은 가능했겠으나 진압군의 한 구성원으로서 군사를 전적으로 맡기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17) 김헌창을 시중에 임명했던 것은 헌덕왕이 김주원세력과 연합정권을 구축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원성왕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견해(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政治的 立場」 『新羅 政治變遷史 研究』, 營雪出版社, 2003, 239~241쪽)도 있다.

안정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후 시중의 교체는 13년 4월 김충공의 사망으로 인한 이찬 永恭 임명만 있을 뿐이었다.¹⁸⁾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1년 上大等 임명에서 배제되었던 김헌창이 다시 永恭의 시중 임명으로 정치적 불만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왕도로 복귀는 고사하고 영공의 시중 임명과 동시에 靑州都督에서 다시 熊川州都督이 되었다는 사실¹⁹⁾에서 보면 김헌창이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그 만큼 왕권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덕왕 즉위 직후 上大等으로 삼았던 伊滄 金崇斌이 11년 2월에 죽자 王弟인 이찬 金秀宗을 상대등으로 삼고 14년 정월에 副君으로 삼아 왕위 계승 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었다.²⁰⁾ 다시 말해서 왕위 승계 과정에서 왕자 집단과 왕제집단 간의 초래될 권력 다툼을 사전에 왕제인 상대등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 사실상 승계를 확정짓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비록 반대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김헌창의 반란으로 이어졌을지라도²¹⁾ 중앙에서 권력구조 상에서 볼 때 헌덕왕 9년(817)이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金彦昇은 昭聖王(799-800)의 동복 아우로서 13세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은 애장왕의 숙부이자 상대등으로서 사실상 攝政을 했던,²²⁾ 왕권의 기반이자 후견인이었던 반면에 김헌창은 父 김주원이 宣德王 死後 群臣會議에

18)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3年 夏四月條.

19)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3年 夏四月條.

20) 李基白은 이러한 인사 조치가 김헌창의 난과 직접 연결된다고 이해하였다(「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17쪽 註45).

21) 李基白, 「앞의 논문」, 1962 : 『앞의 책』, 1974, 117쪽.

22) 李基東은 애장왕대는 왕의 숙부인 김언승의 집정기였으며, 비록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을지라도 律令의 改定, 五廟制度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시기라고 보았다(「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53쪽).

서 왕위에 추대되었을 정도로 무열왕계라는 王統에서 광범한 진골귀족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자로서 奈勿王 傍系인 김언승이나 애장왕과는 정치적 기반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크게 보면 소성왕·애장왕 양대는 이들 중심의 두 정치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세력 간에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던 권력관계에 김언승이 애장왕을 살해하면서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세력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헌창이 시중직을 상실한 것은 그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로써 이후 시중의 잦은 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이다.

김언승 권력의 한 축으로 생각되는 金崇斌은 헌덕왕 즉위 직후 상대등에 올라 동왕 11년 2월에 죽을 때까지 유지하였다. 宣德王 이후 神武王까지 왕위계승을 에워싼 정권의 변동은 항상 상대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²³⁾에서 보면 김승빈은 김언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자로서 애장왕을 제거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된다.²⁴⁾ 金崇斌 사후 왕제인 이찬 金秀宗을 상대등으로 삼았으며, 더구나 14년 정월에 副君으로 삼아 왕위 계승권자로 명백히 하였다. 이는 下代의 권력구조를 특징짓는 王室親族集團員에 의한 권력 장악·권력 집중의 한 전형을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²⁵⁾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23) 李基白, 「앞의 논문」, 1962 : 『앞의 책』, 1974, 123쪽.

24) 최홍조에 따르면 애장왕은 숙부 김언승의 섭정에서 벗어나면서 정치개혁을 주도한 세력으로서 王弟를 비롯하여 친정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섭정세력인 김언승 형제와 권력투쟁 끝에 살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승빈도 섭정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을 것으로 보았다(『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참조). 그렇다면 김언승의 집권으로 권력을 잃었던 김헌창의 경우 크게 보아 애장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소성·애장 양왕대를 놓고 보면 두 세력 간에 정치적 성격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애장왕대 후반기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써 김언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성격이 달랐던 이찬 김헌창을 동왕 8년(807) 侍中職에 임명했던 것이다. 적어도 새로운 집권자인 헌덕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25) 李基東, 「앞의 논문」, 1980 : 『앞의 책』, 1984, 152쪽.

김헌창의 난 당시 정치세력의 실상은 크게 왕권을 축으로 한 왕실집단과 그 협소한 범위를 제외한 세력 및 김헌창과 같은 권력 핵심에서 배제되어 가던 세력으로 나눌 수 있겠고 왕실집단세력과 나머지 두 세력으로 크게 양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세력 가운데 김헌창의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세력은 비록 진골귀족이지만 지방관으로서 사실상 중앙의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三州 都督과 三小京 使臣으로서 처음부터 동조했던 자이거나 김헌창의 僞計내지 선동에 고무되었는지 간에 적극적으로 중앙세력에 맞섰던 세력이었다. 사료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주도독 尙榮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이웃 推火郡으로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란에 동조한 여러 도독과 사신들은 결국 지방관으로서 중앙세력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起義한 세력이었기에 협박에 의해서 가담했다는 것은 진압군의 명분에 불과했다. 더구나 완산주의 長史 崔雄과 州助인 阿滄 正連의 아들 命忠 등이 王京으로 도망하여 반란을 알린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지방관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반란에 가담했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신라 중앙의 정치적 갈등·대립관계에서 초래된 적극적 불만세력으로서 김헌창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세력으로서 아마도 난 후 죽임을 당했던 239명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 진골귀족 출신이지만 왕도 서라벌 중심의 정치질서에 소외된 자들과 다 같은 귀족이지만 특권층인 진골귀족 중심의 배타적 질서에서 늘 소외된 六頭品과 五頭品 출신으로서 지방관 중에서 少守나 太守²⁶⁾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여의 경우처럼 왕도의

26) 眞聖女王代(887-897)의 崔致遠 같은 경우 六頭品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속함군 태수라는 지방관을 제수받음으로써 그가 바친 진성여왕 8년 時務10余條에서 잘 드러나는 중앙에서의 원대한 정치·사회 개혁의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해인사에 은거하게 되었던 것이다(『三國史記』 46, 列傳 崔致遠 참고). 신라가 거의 경상도 지역으로 지배력이 축소되었을지라도 육두품 신분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던 것이다. 물론 헌덕왕을 뒤를 이은 흥덕왕대(826-836)의 골품제의 재규정에서 一頭品에서 三頭品까지 백성과 차별이 사라진 것이나 외위의 소멸에서

진골귀족 중에서 왕실집단의 권력 강화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김헌창의 난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세력들도 존재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김헌창은 애장왕대(800-809)에 김언승과 더불어 중요한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덕왕대(809-826)를 김헌창 세력이 사실상 중앙의 권력에서 밀려난 9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고 전반기는 시중의 잦은 교체에서 잘 드러나듯이 왕권이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었던 시기이다. 그리고 후반기는 14년 김헌창의 반란이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중앙의 권력구조상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된 시기였다. 헌덕왕 전반기에 중앙에서나 지방관으로서 지나치게 견제를 받았던 김헌창이 청주도독으로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임할 수 있었던 것도 왕권의 안정·강화에 따른 왕권과의 정치적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킬 때 父 金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명분으로 내걸었을지라도 실체는 헌덕왕이 애장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김헌창이 소외되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헌덕왕의 권력 강화에 대한 불만 세력의 호응을 기대한 점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3. 金憲昌의 亂과 晉州地域 在地勢力

진주지역이 문헌 기록상으로는 실제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커다란 변화가 보이는 시기는 통일전쟁의 마무리와 더불어 지방통치체제가 9州 5小京 體制로 재편되는 시점인 7세기 후반이었다. 神文王 5년(685)에 9주의 하

알 수 있듯이 곱품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용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왕 이하 진골귀족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한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재강화하려는 점도 갖고 있었다.

나인 靑州가 진주지역에 설치²⁷⁾됨으로써 진주지역이 갖는 정치·사회적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청주 주치에는 도독의 지휘하에 상시적인, 9州停 하나인 靑州停이 두어져 지방군 중심지의 하나였다.²⁸⁾ 신라 통일기 청주 州治를 중심으로 하여 비록 정치·군사적 비중은 달랐지만 州·小京·郡·縣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연촌을 기초 단위로 한 據點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 특징으로써 대체로 領屬關係를 이루고 있었다.²⁹⁾ 주지하다시피 7세기 후반 통치체제의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재편 방식으로써 사람과 토지를 비롯한 촌락공동체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되자 靑州地域은 인·물적 토대의 풍부함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던 것이다.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을 때 호응한 武珍·完山·靑·沙伐州의 四州와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은 김헌창이 都督으로 있었거나 이웃 州와 小京이었다. 김헌창은 熊川州都督으로 부임한 지 1년도 안된 시기에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長安國, 年號를 慶雲으로 하여 단시일 내에 武珍·完山·靑·沙伐州의 四州와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을 장악했다. 김헌창이 웅

27) 이와 같이 靑州라는 地名이 문헌기록에 처음 등장한 이후 景德王 16년(757) 漢化政策과 맞물려서 康州로 개명되었으나 惠恭王 12년(776) 官號復舊 시에 청주로 복구되었다.

『三國史記』 8, 新羅本紀 神文王 5年 春條; 同 9, 景德王 16年 冬12月條; 同 9, 惠恭王 12年 春正月條; 同 34, 地理志 1 康州條.

28) 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1990; 李文基, 「景德王代 軍制改革의 實態와 新軍制의 運用」,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405쪽.

29) 그런데 소경이나 현과 달리 주나 군은 거점의 의미 이외에 그 하부에 각각 군이나 현을 영속했으므로 광역의 행정·군사지역이라는 의미도 아울러 갖는 이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靑州(康州)는 두 개 현(嘉壽縣·屈村縣)을 直轄領縣으로 거느리는 거점으로써 일정한 관할영역을 갖는 의미로 뿐만 아니라 固城郡·高靈郡을 비롯한 11개의 군을 포괄하는 廣域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朱甫暉, 1987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합집, 1987, 6~7쪽 참조; 후보돈,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88, 261~262쪽).

천주를 본거지로 하여 4주 3소경을 차례로 공략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 김현창의 호응세력이 함께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단시일에 신라를 양분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지방관이나 재지세력을 비롯한 지방세력의 호응이 그만큼 컸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현창의 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순한 권력투쟁의 형태가 아니라 왕조교체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9세기 말에 이르러 신라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사실이며, 9세기 초반 당시의 전후 모반과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크게 보아 지방관과 재지세력이 합세한 지방세력이 중앙세력과 정치적 이해에서 적대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앙출신의 진골귀족 지방관 중에서 김현창의 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력들의 정치 성격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중앙과 지방의 차별이라는 신라 진골귀족 중심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³¹⁾ 그러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변화를 진주지역의 김현창의 난과 관련성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현창은 헌덕왕 8년 정월 청주 도독에 임명되어 丙子 13년 4월까지 5년 이상 청주 도독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청주지역, 특히 청주 주치의 재지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현창의 뒤를 이은 靑州都督 向榮이 난이 발생하자마자 州治에 둔 상비군적 성격의 靑州倂에 대한 지휘권의 상실내지 포기에도 다름없는 이웃 추화군으로의 도망한 것

30)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39~40쪽 참조.

31) 外位制의 소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통일전쟁을 겪으면서 지방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신라 사회가 중앙 진골귀족 중심의 골품제 사회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음은 이 사건 얼마 후 중앙 중심의 골품제 재강화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에 잘 알 수 있다.

은 김헌창과 진주지역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예사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³²⁾

향영의 청주 도독 임명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헌덕왕 13년 4월 김헌창의 웅천주 도독 改任 때 청주 도독으로 임명되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불과 1년도 안된 다음 해 3월에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을 때 청주 도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청주 도독 향영이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 5년 이상 장기간 청주를 지배하면서 주치의 지방세력에 다름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임 도독 김헌창의 난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주치의 재지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관할하의 여러 군현의 하급 지방관들도 사실상 지방세력화하여 김헌창의 영향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주 州治에는 주의 장관인 都督 1人, 보좌관인 州助 1人과 長史 1인이 중앙에서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外司正 2인이 파견되어 지방관을 감찰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동향은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근거 사료가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사료 가)의 “완산주의 長史 崔雄과 州助인 阿滄 正連의 아들 令忠 등이 王京으로 도망하여 이를 알렸다”라는 기사에 따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청주 주치의 주조·장사, 심지어 지방관 감찰의 임무를 지닌 外司正까지도 推火郡으로 도망한 靑州 都督 向榮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청주도독 향영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했던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822년 당시 향영은 擧兵自守할 정도로 청주 주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고 청주지역의 여러 하급 지방관들도 재지세력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헌창이 장수를 보내어 要害를 지키게 했는데 그 중 하나로 청주 관할

32) 九州停의 운용이나 성격 및 그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이문기의 견해가 참고 된다(李文基, 『앞의 논문』, 1990 : 『앞의 책』, 1997, 404~408쪽).

하의 星山郡³³)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헌창군은 성산에서 均貞의 진압군과 싸워서 패하였으며, 또한 張雄이 적병을 道冬峴³⁴)에서 만나 이를 격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헌창군의 일부는 요로를 지키는 동시에 왕경을 목표로 진격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료 가)의 “歙良州의 屈自郡³⁵)은 賊에게 가까웠으나 亂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7년간 납세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에서 보면 청주는 명백히 김헌창세력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州郡을 단위로 하여 반란에 가담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청주는 州治나 廣域州 모두 김헌창의 세력으로서 방어기지이자 이를 발판으로 중앙으로 진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향영의 행동을 통해서 김헌창의 난과 진주지역의 관련성을 좀 더 검토해겠다. 향영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은 왜 그는 즉각 왕도로 달려가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진압군의 편성에 참여하는 등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리고 청주도독 向榮은 왜 하필이면 이웃 推火郡으로 도망하였던 것일까. 특히 사료 가)에 따르면 十八日 完산주의 長史 崔雄과 州助인 阿淦 正連의 아들 令忠 등이 王京으로 도망하여 이를 알렸던 것과 향영의 행동은 너무 대조적이어서 이를 검토하면 당시의 靑州 주내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향영이 왕경으로 곧장 도망하여 진압군의 편성에 가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행동은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계획된 것이었는지 검토를 통해서 김헌창의 난과 靑州의 向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향영이 왕경으로 곧장 달려가서 반란을 알리지 못한 것은 우발적인

33) 대체로 지금의 성주군 성주읍으로 인정되고 있다(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上, 乙酉文化社, 1983, 203쪽).

34) 臨臯郡의 領縣 가운데 하나인 道同縣으로 고려 때 永州(지금의 영천시)에 합하였다(『三國史記』 34, 地理 1, 良州條 참고).

35) 義安郡은 본래 屈自郡이었는데 지금의 창원에 해당한다(李丙燾, 『앞의 책』, 203쪽).

행동으로 위급 상황에서 반군에 가담하지 않은 최단의 이웃 군으로 도망하여 보호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낮은 위치의 장사나 주조의 아들이 왕경으로 도망하여 變故를 알릴 정도면 도둑인 신분에서 멀지 않은 왕경으로 곧장 달려가서 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왜 향영은 추화군에서 머뭇거렸는가는 당시의 실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향영은 청주의 반란 가담세력의 동향과 중앙 진압군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유보했다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향영이 삼랑주의 추화군으로 도망하여 청주세력이 동남방향에서 왕경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추화군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진압군의 출발에 앞서 왕경의 동남방어는 蚊火關門³⁶⁾에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나 敵良州의 屈自郡이 적의 이웃에 있으면서 가담하지 않았다고하여 조세를 7년이나 면하여 주었던 사실에서 보면 굴자군은 중앙의 명령에 앞서서 반군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타 州郡처럼 군태수가 지역내 지방민을 징발·편성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의 지휘하에 군을 지켜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³⁷⁾ 따라서 향영이 추화군에서 중앙의 진압군을 대신한 어떤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추화군은 비상상황하에서 敵良州都督의 군사적 지휘체계 아래에 놓여 있었을 것³⁸⁾이기에 향영이 정치적 역할 이상의 것을 맡을 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향영이 거리상으로 추화군보다 가깝고 擧兵 自守한 굴자군으로 가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도 정치적으로 반란 진압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도둑으로 재임했던 청주전역이 가담한 대규모 반란 상황을 목격한 향영으로서는 왕경 동

36) 蚊火關門은 지금의 경주시 외동읍(李丙巒, 『앞의 책』, 203쪽)으로서 왕도 서라벌 방에서 서북쪽 건천읍과 더불어 주요한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동남쪽 진출로에 해당한다.

37) 李文基, 『앞의 논문』, 1990 : 『앞의 책』, 1997, 404쪽.

38) 李文基, 『앞의 논문』, 1990 : 『앞의 책』, 1997, 405쪽 참고.

남을 감싸는 삼랑주의 추화군으로 도망은 하였으나 쉽게 중앙 진압군의 편에 가담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반란이 일어날 당시 김헌창이 중앙의 진압군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했던 곳이 청주 관할 하의 성산이었다는 점, 향영 자신이 위급 상황에서 이웃 군으로 혼자 도망하였던 점, 곧장 왕경으로 달려가 變故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주지역은 김헌창의 핵심 기반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주의 지방세력의 향배를 좀 더 검토하겠다. 청주 지역에 대한 중앙세력의 지배력의 인적 측면은 주치에서 주의 장관인 都督 1人·州助 1人·長史 1人·外司正 2人³⁹⁾과 군현의 太守·少守·縣令이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이들이 촌주를 통해서 민을 간접지배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보면 청주 주치와 촌주세력을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 반란에 대한 청주지역의 향방은 결정되었을 것이다. 물론 9세기 초 당시 청주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은 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덕왕 11년(819) 당시 草賊이 사방에 일어나자 諸州郡의 都督·太守에게 명하여 그들을 붙잡게 하였다⁴⁰⁾는 사실에서 보면 지방 군사력에 대한 지배력도 諸州郡의 都督·太守가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¹⁾ 그리고 주의 행정을 보좌하던 州助 1人·長史 1인과 지방관을 감찰하던 外司正 2인이 도독인 향영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헌창의 改任과 동시에 중앙에서 교체·파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39) 『三國史記』 40. 職官志 下 外官條.

40)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1年 三月條.

41) 김헌창의 난 당시 그 진압군의 성격이 私兵의 존재였다면(李基白, 「新羅 私兵考」 『歷史學報』 9, 1957 : 「앞의 책」, 1974, 259~260쪽 ; 金東洙, 「앞의 논문」, 1982, 40쪽) 지방의 군사력 또한 公兵이었을 가능성 보다 사실상 주현의 지방관 장악하의 사병적 성격이 짙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반란 당시 조직적인 명령체계 아래에 놓여 있었다기보다 지역 분산적이어서 사병인자라도 조직적이고 보다 대규모인 진압군에 맞서 각자 고립·격파되었음을 성산이나 도동현 싸움에서 잘 알 수 있다.

다. 설령 향영과 동시에 중앙에서 파견되어 왔더라도 향영과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거나 청주의 반란 가담세력에 의해서 사전에 제압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완산주의 장사 최웅과 주조 정련의 아들 영충의 예나 도독 향영이 이웃 군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상황, 擧兵 自守한 州郡의 존재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중앙 파견의 청주지역 지방관은 반란 가담세력에 의해서 사전에 제압당했을 가능성 보다 적극적으로 반란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지만 아래 사료는 김헌창의 난 당시 청주지역 재지세력이나 지방관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헌창과 靑州地域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나) - 이 보다 앞서 靑州 태수 廳舍 남쪽 못 가운데 이상한 새가 있어 크기는 오척, 빛은 검고 머리는 다섯 살쯤 된 아이만 하고 주둥아리의 길이는 一尺五寸, 눈은 사람 같고 뱀주머니 닮되들이 그릇만 하였는데 사흘만에 죽으니 이는 憲昌이 망할 징조였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4年條).

위의 사료 나)는 김헌창의 패망에 앞서 靑州 州治에서 動物變이 일어났을 알려주고 있다. 天災地變과 動物變 기사가 청주 주치나 청주의 정치적 동향과 관련하여 예사로운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⁴²⁾는 점을 고려하면 動物變이 단순히 김헌창의 망할 징조를 암시하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동물변 기사는 어떤 사실의 전달 의미 이상의 것을 전하려는 측면에서 내용에서 과장·왜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의 과장이나 왜곡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변의 무대가 왜 하필 청주 청사인가라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동물변이 청주 주치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만일 그렇더라도 청주와 단절된 웅천주 반란세력에겐 그 내용의 사실을 떠나서 정치적 영향

42) 申澧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184~209쪽 참고.

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에서 약간의 과장이 있으나 실제 동물변이 청주 주치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을 정치적 의미로써 해석하여 퍼뜨린 세력이나 그 반대의 세력들에게 당시의 혼란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동물변이 시사하는 정치적 의미가 청주 州治民들과 거기에 기반하고 있었던 김현창 반란의 동조 세력인 촌주층에게 끼친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薺州 태수 廳舍 남쪽 못의 동물변은 김현창의 지지 세력에 대한 어떤 모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옹천주의 김현창을 압박하면서 진격하던 진압군에 의해서 청주지역이 옹천주와 단절·고립되었을 것이며, 그런 와중에 이 동물변 내용을 퍼뜨려서 김현창 지지세력을 우왕좌왕의 혼란 지경에 이르게 하여 와해시키려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추정된다.⁴³⁾ 바꾸어 말해서 薺州 廳舍의 動物變을 김현창이 망할 징조라고 해석할 만큼 청주가 김현창 세력과 관계가 매우 긴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사료 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현창의 지지기반의 핵심이 바로 청주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또 다른 실마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지방관인 도독이 중앙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감찰하기 위해서 外司正 2인을 파견했을지라도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재임함으로써 사실상 재지세력화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김현창이나 그 세력을 중앙과 긴밀한 관계하에서 향영이 사전에 반란을 막거나 알아낸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청주지역을 그들의 세력하에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청주지역 재지세력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

43)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압군이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 군사력의 규모로써 5주 3소경의 넓은 반란 지역을 손쉽게 그들이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변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그들의 부족한 장악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진압수단에 다름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에서 청주도독 향영은 혼자 推火郡으로 달아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하급 지방관은 김현창의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왕위쟁탈전에서 더 나아가 신라 국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하급관료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던 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앙의 정치현실 역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란에 가담한 모든 지방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중에서 중앙의 정치역학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자들로서 김현창의 僞計에 의해서도 쉽게 동조했을 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향촌공동체의 변동을 통해서 김현창이나 중앙세력에 대한 진주지역 재지세력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현창의 난이 신라를 일시에 양분하는 데에 중앙 진골귀족 간의 권력투쟁에 기인한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덕왕대의 기근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였다. 元聖王代の 연속된 누리와 기쁨의 피해를 입은 농민을 救恤하고 賑給하였으나 도적이 많아 使者를 보내어 이를 위로하기도 하였다.⁴⁴⁾ 그런데 현덕왕대에는 西邊 州郡에 큰 기근이 들어 盜賊이 봉기하

44) 원성왕 7년 이찬 拂蒸이 반역하다가 伏誅되었는데 이는 그 전의 연속된 자연재해와 전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사회적으로 흉흉한 민심을 낳고 그 민심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왕태자의 죽음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아울러 왕경과 극히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는 國東과 심지어 王都까지 기근이 드는 상황하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을 초래했을 것임은 오히려 당연한 이해가 아닐까 한다.

① “4월 國東에 雨霽이 내려 뽕과 보리가 모두 상하였다. 7월 가물었다. 9월 王都의 민이 굶주리므로 粟 三萬三千二百四十石을 내어 이를 賑給하고 10월도 또 粟 三萬三千石을 내어 이들에게 주었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元聖王 2年條).

로 군사를 내어 이를 討平하였다⁴⁵⁾는 사실은 단순히 도적이 많아 慰撫하였던 것과 달리 도적이 서변지역에 널리 분포하면서 조직화하여 지배력에 저항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 서변의 도적 봉기는 그 전해 國西의 水害 발생⁴⁶⁾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서변과 국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불안정한 농업생산구조 하에서 당시 자연재해로 인한 민의 몰락은 광범한 현상이었다. 심지어 몰락한 민들 중에는 당에 이르기⁴⁷⁾까지 할 정도로 당시 유망민이 향촌사회에서 널리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의 지배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草賊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⁴⁸⁾ 이와 같이 9세기 들면서 민의 분화로 촌락공동체가 급격한 변동 겪으면서 향촌사회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元聖王代에는 비록 연속된 누리와 가뭄의 피해로 인해서 몰락 농민이 많이 도적화하였으나 조직적인 저항의 형태에 이르지 않았다. 그 만큼 민에 대한 지배력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憲德王代(809-826)에 이르

② "7월 누리가 나서 穀物을 해치웠다"(上同, 元聖王 3年條).

③ "國西에 가뭄과 누리(蝗)가 있고 도적이 많아 왕이 使者를 보내어 이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였다"(上同, 元聖王 4年 秋條).

④ "溟山州 民이 굶주리므로 粟을 내어 이를 구휼하였다. 가을 7월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上同, 元聖王 5年 春正月·秋七月條).

⑤ "5월 粟을 내어 溟山·熊川·二州의 饑民을 구제하였다"(上同, 元聖王 6年條). ⑥ "王太子가 죽으니 謚號를 惠忠이라고 하였다. 伊滄 悌恭이 叛하다가 伏誅되었다"(上同, 元聖王 7年 春正月條).

⑦ "8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上同, 元聖王 11年條).

⑧ "가을 9월에 國東에 누리(蝗)가 곡식을 해쳤다"(上同, 元聖王 13年條)

45)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7年 秋八月條.

46) "5월 國西에 홍수가 났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水害를 입은 州郡의 人民을 撫問하고 1년간의 租調를 면제하였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6年 夏五月條).

47) "이 해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근으로 唐의 浙東에 가서 먹음 것을 구하는 자가 170명이었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8年條).

48) "3월 草賊 사방에서 일어나 왕이 諸州郡의 都督·太守에게 명하여 그들을 붙잡게 하였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1年條).

러 누리와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피폐함은 전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으로 초래된 사회적 현상은 전과 현저히 다른 모습이었음은 민의 대응양상이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중앙의 민에 대한 지배력을 전제한 재지세력으로서 촌주세력이 아니라 반독자적 지방세력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져갔음을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憲德王 17년(825) 金憲昌의 아들 梵文이 高達山の賊 壽神 등 100餘人과 함께 謀叛하여 平壤(楊州)에 都邑을 세우려고 北漢山州를 공격하므로 都督 聰明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사로잡아 죽였던 사실⁴⁹⁾에서 보면 이제 초적이 단순히 지배력에 대항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모반세력과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서남·서북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지세력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크게 키워가고 있었으며, 이들도 세력 확대 과정에서 중앙의 소외세력이나 모반세력과 힘을 합치기도 하였음은 알 수 있다. 서남해안지역의 반독립세력으로 성장한 張保臯⁵⁰⁾와 그를 제거하였던 閻長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들 외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로 말미암아 대외무역의 이권을 잃고 그 아래에 통제를 받았던 서남해안 군소 호족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을 것이다.⁵¹⁾ 그리고 張保臯가 당에서 돌아온 그 해(828)에 청해진 설치⁵²⁾

49)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7年 哀 春正月條.

50) 80년대 중반 이후 장보고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가 속속 나오므로써 장보고의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완도문화원 편, 『張保臯의 新研究』, 완도문화원, 1985; 해상왕 장보고 연구회 편, 『張保臯關係研究論文選集』 韓國篇, 中國·日本篇,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51) 崔根泳, 『統一新羅時代の 地方勢力研究』(增補版), 신서원, 1993, 141~144쪽;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44~148쪽.

52) 장보고가 귀국한 그 해(828)에 청해진 설치를 요청하자 興德王 3년(828) 4월 당시 사중이었던 金祐徵이 훗날 왕권다툼 과정에서 군사적 도모를 위해서 즉시 허락되었다고 이해하였다(권덕영, 『張保臯 略傳』, 『慶北史學』 25, 2002, 40~41쪽).

를 요청하는 사실에서 보면 이미 9세기에 서남해안 지역은 중앙의 통제력에서 이탈해 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요청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이⁵³⁾ 신라의 중앙 통제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재지세력의 호족화를 가져왔을 것이다.⁵⁴⁾ 서북지방의 軍鎮勢力이나 예성강 하구에서도 王建 家系를 비롯한 여러 세력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高麗王室世系에 따르면 왕건의 祖父 作帝建은 干位를 자칭할 정도로 상당한 재지세력으로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으며, 王建의 재위년(918-943)과 나이 67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3세대 소급하면 820년대쯤에 해당한다.⁵⁵⁾ 이 시기는 서남해안 지역의 여러 세력이 호족화하는 9세기 초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구체적 실현 형태의 하나인 민에 대한 지배력의 약화 조짐으로 9세기에 이르면 중앙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서북과 서남해안 지역은 서서히 민의 유망과 草賊化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앙 진골귀족 간의 권력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민의 유망·초적화와 같은 사회변동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하는 틈을 타서 왕도에서 비교적 먼 곳으로부터 반중앙적인 세력이 서서히 원심력을 倍加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文聖王 8년(846)에 발생한 張保臯의 謀叛은 재지세력이 주도하여 중앙의 권력다툼에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이 동시에 간여한 최초의 반란이었던 김헌창의 난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는 그 사이에 재지세력이 그만큼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하는 것과 맞물려서 반대로 재지세력의 민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

53) 『三國史記』 9, 列傳 張保臯傳 참조.

54) 鄭清柱, 「新羅末·高麗初 羅州豪族」 『全北史學』 14, 1991 :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潮閣, 1996, 참고.

55) 『高麗史』 序, 高麗世系.

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헌창의 난은 재지세력의 성장과 분화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820년대는 중앙과 지방과의 정치·사회적 관계 변화에서 한 획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김헌창의 난을 전후하여 진주지역 재지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당시 청주의 재지세력으로서 크게 卍서州·郡司와 그 관할하의 縣司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던 촌주와 吏職者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⁵⁶⁾ 먼저 현의 촌주층은 上村主·第二村主·第三村主 등의 형태로 보다 세분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 惠恭王代(765-780)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泗川船津里新羅碑”에 ‘上村主’와 ‘縣令’이 확인된다.⁵⁷⁾ 여기서 현령은 靑州 泗水縣의 현령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上村主는 문성왕 18년(856) 竅興寺鍾의 銘文을 참고로 할 경우 상촌주 아래에 第二村主·第三村主의 존재를 추정할 있다.⁵⁸⁾ 따라서 청주 관할하의 사수현의 촌주의 수는 셋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청주 관할하의 현도 신라 중대 현령이 다스리는 지역의 촌주의 수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셋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興德王 8년(833)에 제작된 靑州 蓮池寺鍾 명문 중에 보이는 “鄕村主 三長及干 朱雀大乃末”⁵⁹⁾ 등은 鑄鍾

56) 州·郡司와 縣司 사이에 어느 정도 상하예속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지역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체로 신라 중대 지방편제에서 기준이 된 것은 田丁·戶口였다든 점에서 보면 촌주 사이에도 어떤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이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군현 내의 촌주층도 관동이나 촌주 직위의 세분 형태로 일정한 서열이 존재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지방관사를 구성하고 있었던 재지세력으로서의 촌주와 軍師 등의 吏職者였다(金周成, 『新羅下代の 地方官司와 村主』 『韓國史研究』 41, 1983, 57~71쪽).

57) 泗川 船津城公園 駐車場敷地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2004年 6月 30日, 慶南文化財研究院), 4쪽.

58) 竅興寺鍾銘文(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176쪽 참고).

59)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288~290쪽.

佛事를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자들로서 청주 주치의 촌주였다고 추정된다.⁶⁰⁾ 이들 촌주세력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청주지역 촌주세력은 관할영역 州 1·郡 11·縣 27개⁶¹⁾와 기본적으로 현과 대등한 ‘소영역’ 단위의 주치와 군치를 겸안하여⁶²⁾ 볼 때 적어도 117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김현창의 난 때 희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³⁾ 그리고 州·郡司와 그 관할하의 縣司 구성원으로서 吏職者로서는 청주 연지사 종명에 보이는 軍師와 史六도 주목된다.⁶⁴⁾ 이들은 촌주에 비

60) 鑄鐘이나 佛宇 건립의 실제적 주도세력은 莒州 蓮池寺鐘銘에서 알 수 있듯이 청주의 주치지역 재지세력이었고 그들 지배하의 촌락공동체가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향촌주라고 표현된 재지세력이 촌주와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기존의 향촌주에 대한 이해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鄉의 실체를 행정구역의 의미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향이란 연지사가 소재하는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주 연지사는 지금의 진주중앙초등학교 인근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10년대 까지 그 바로 앞에 大寺池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사지는 물론 진주성의 壕宇이기도 했다. 따라서 굳이 추측하자면 향촌주는 바로 진주성내 마을을 포함한 연지사 바로 이웃의 촌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시 청주의 주치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청주 연지사의 향촌주는 청주의 촌주세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자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鑄鐘佛事를 주도하였을 것이다. 주종불사는 촌주세력 자신 만이 아니라 촌민들의 기원의 구체적 물적 표현의 형태로써 나타났을 만큼 자발적인 모습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치·사회적 혼란기에서 그들 촌민이 현실적으로 의탁하여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이 촌주세력이었을 것임은 자명하기에 그렇다. 따라서 불교문화의 일상화는 나말여초에 청주지역 호족세력에게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용 열어주었던 것이다. 청주 연지사종명에 보이는 향촌주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검토할 것이다.

61) 『三國史記』9, 新羅本紀 景德王 16年 冬12月條.

62) 姜鳳龍, 「統一新羅 州郡縣制의 構造」, 『白山學報』52, 1999, 545~546쪽.

63) 당시 청주의 촌주세력 중 많은 자가 도태되는 한편으로 莒州 蓮池寺 鐘銘에 보이는 새로운 세력으로 대체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康州將軍 閔雄, 權知康州事 王逢圭, 康州將軍 有文 등 진주지역 대호족들의 사료상 활동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았을 정도로 당시 급격한 청주의 사회변동을 고려하면 9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에 많은 촌주세력이 충분히 호족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64) “作韓舍 寶清軍師 龍在軍師 史六 三忠舍知 行道舍知”(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288~290쪽).

해서 재지에서의 기반이 약하여 청주 재지세력의 주도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金憲昌의 亂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핵심지지기반이었던 청주지역 촌주층의 존재양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은 진주지역 촌주세력의 자립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都督의 부재와 김헌창의 지지기반이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시적이거나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었던 郡·州司에서 지배권 행사와 그것을 통한 청주지역에 대한 정치·사회적 주도권의 확보, 김헌창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처벌을 받았을 촌주세력의 존재 등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후 국가질서 붕괴 과정에서 그들의 세력화에 소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국가질서의 붕괴 과정에서 靑州 州治로서 갖는 정치·군사적 이점 못지않게 자립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앙의 통제력이 완전히 와해된 시점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촌주세력이 성공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⁶⁵⁾

4. 맺음말

본론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라 하대의 권력 다툼 중에서 金憲昌의 亂은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이 동시에 관련된 최초의 반란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기존의 謀反과 달리 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

65) 실제 김헌창의 난 당시 촌주들은 자신의 예측하에 있는 농민 뿐만 아니라 對民支配의 직접 담당자로서 평시 역역동원의 경험을 살려서 민을 동원하고 군사력으로 삼아 중앙의 진압군에 맞섰던 것으로 생각된다. 촌주층이 하나의 세력을 이룰 경우 단시일 내에 하나의 郡縣을 차지하는 데에 더 나아가 청주 전체를 일시에 그들의 장악하에 두었을 것이다. 이는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고 곧 청주도독 向榮이 청주 주치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후 이웃 州郡으로 도망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히 권력 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라 왕조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보면 골품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재지적 입장이 반영된 사건이었다.

김헌창의 반란의 원인은 父 金罔元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측면보다도 현덕왕대 후반 중앙의 정치에서 소외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 원인은 김헌창이 재지세력의 성장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치적 목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무진주나 청주의 도독 경험의 크게 작용하였다. 김헌창은 대의명분으로 부 김주원을 예로 들면서 왕통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 자신의 정치적 소외에 불만을 품고 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왕조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중앙세력 중에서 김헌창이 호응을 기대한 김주원 가계의 반란에 대한 지지가 없었던 것은 이미 王室親族集團員에 의한 권력 장악·권력 집중이 끝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김헌창 반란의 주도세력은 촌주나 하급 지방관을 비롯한 지방세력이었다. 그 대표적 지방세력은 크게 응천주와 菁州地域이었다. 동서북 변경지역과 왕도를 둘러싼 삼랑주를 제외하고 세력판도에서 볼 때 주요한 모든 지역이 熊川州都督 김헌창 모반에 호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관군이 진압군의 출정과 동시에 왕경에 해당하는 蚊火關門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볼 때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료상에서 확인되는 “四州 都督과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의 使臣과 諸郡縣의 守令을 협박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으니”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중앙 진압군의 입장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김헌창의 난에 대한 여러 주군의 광범한 지지에 대한 당황한 모습의 일면이었다. 물론 반란에 가담한 모든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중에서 김헌창의 僞計에 의해서도 쉽게 동조했을 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직적인 중앙 진압군의 위세에 쉽게 굴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菁州는 명백히 김헌창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김헌창이 도독으로서 행정이나 군사를 실제 장악하고 있었던 熊川州와 더불어 핵심 지지기반이었다. 반란과 거의 동시에 군사를 王京 인근 道同縣에 출동시킬 정도였으면 靑州 州郡의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고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向榮 자신이 위급 상황에서 이웃 군으로 혼자 도망하였던 점, 곧장 왕경으로 달려가 變故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州治의 動物變 등을 고려하면 청주지역은 김헌창의 핵심 기반이었다.

헌덕왕 9년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권력이 안정되어 갔던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농업재생산의 기반이 취약한 민들이 기근으로 굶어죽거나 심지어 草賊化하는 경우를 여러 州郡에서 동시에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전과 다른 향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은 재지세력의 성장과 세력화에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옛백제 지역 재지세력에게 백제 부흥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자극한 사건이었으며, 여타 지역 재지세력의 反中央의인 기운을 촉진시켰다. 반면에 웅천주와 더불어 김헌창의 기반이었던 청주지역의 재지세력은 커다란 타격을 입어 도태되거나 재편을 겪었다. 하지만 청주지역이 일시적이거나 중앙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으로 존재했었던 사실은 9세기 말 촌주세력의 급격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정치적 배경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된다.

김헌창의 난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중앙과 지방의 역관계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김헌창의 난은 중앙 출신 세력이 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일으킨 최초의 반란이었음에 비해서 張保臯의 謀叛은 재지세력이 주도하여 중앙의 권력다툼에 개입하였던 것이다. 그 사이에 재지세력이 정치·군사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金祐徵이 장보고의 귀국에 즈음하여 이미 그 세력을 중앙의 권력 다툼에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820년대는 중앙과 지방의 역관계 변화의 한 획기로 설정

할 수 있다.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논리비약이나 논증의 문제는 선학의 교시를 받아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金富軾, 『三國史記』.
- 一然, 『三國遺事』.
- 鄭麟趾 外, 『高麗史』.
- 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研究』, 해안, 2003.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박중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 역사, 2002.
- 申滢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 완도문화원 편, 『張保臯의 新研究』, 완도문화원, 1985.
- 李基東,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_____,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 李明植, 『新羅政治變遷史研究』, 螢雪出版社, 2003.
-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上·下, 乙酉文化社, 1983.
- 李仁哲,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1996.
- 朱甫墩,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 해상왕장보고 연구회 편, 『張保臯關係研究論文選集』韓國篇, 中國·日本篇,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출판부, 2000.
-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增補版), 신서원, 1993.
- 한길사 편, 『한국사』4, 한길사, 1994.
- 황선영,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姜鳳龍, 『統一新羅 州郡縣制의 構造』 『白山學報』 52, 1999.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 金貞淑,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1984.

- 金周成, 「新羅下代の 地方官司와 村主」 『韓國史研究』 41, 1983.
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1990.
李泳鎬, 「新羅 中代の 政治와 權力構造」,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5.
朱甫暉,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합집, 1987.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Abstract

The Revolt of Kim Heon-chang and Jinju region in the period of King Heondeog in Silla

Park, Yong-Gug

The revolt of Kim Heon-chang(金憲昌) of the late Silla Dynasty was the first uprising which the central power and local power were connected, and aimed to change Dynasty. Kim Heon-chang brought out a problem of royal legitimate to central power emphasizing his father Kim Ju-won, and a change Dynasty to local power including old Bakje(百濟) region. Kim Ju-won (金周元) family and Kim's supporters who Kim Heon-chang asked for a central power assistance gave not substantial aid to, because power grasp and centralization of the Royal Family (relative) group members were already finished. According the substantial main group of the revolt of Kim Heon-chang was a local power including Chonju(村主) group. The leading local group classified roughly old Bakje region including Woong Cheon ju(熊川州) and Chongju(菁州) based on their own influence.

The revolt of Kim Heon-chang stimulate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revival of Bakje Dynasty among the local powers in the old Bakje region. Still, it promoted anti-Silla and anti-centralization of government emotions among other local power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powers of the Woong Cheon ju and Chongju region which was Kim's base were hard hit and did not become independent for a while. But the fact that Chongju region was independent power out of central rule affecte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Chonju group's independent in any way.

Key Word

Kim Heon-chang, revolt, Chongju region, local power, independent